

전쟁과 원폭에 대한 공간적 재현* **

- 합천원폭자료관 사례를 중심으로 -

남 영 주***

I. 머리말

2018년 교황의 신년 카드에는 원폭으로 사망한 동생을 옆고 있는 어린 남자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교황은 이 “원폭 피해 소년”을 통해 전 세계에 원폭으로 인한 피해를 상기시키고 비핵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지금도 원폭의 상흔이 남아 있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는 자료관이 건립되어 피해의 실상을 알리며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있다.¹⁾ 그런데 두 자료관은 원폭이 왜 일본에 투하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일본인들의 피폭 실상만 기억하고 있다. 이들 자료관의 원폭에 대한 기억은 철저히 피해자로서의 입장이며, 일본의 전쟁 책임은 회피한 채 비핵과 평화만을 강조하고 있다.²⁾

원폭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인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한국인 피해자는 히로시마에서 5만 명, 나가사키에서 2만 명이 발생하였다.³⁾ 발표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 인명 피해자의 약 10%가 한국인이다. 광복 후 한국인 생존자 3만여 명 중 남한 지역에 2만 3천여 명이 귀국하였는데, 그 중 60-70%는 합천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히로시마 지역의 피해자 중 99%가 합천 출신이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 다음의 원폭 피해국이다.

* 투고일자 : 2018. 11. 26. 심사일자 : 2018. 12. 26. 게재확정일자 : 2018. 12. 27.

** 본 논문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공간화를 위한 합천원폭자료관 전시구성과 개선방안」, 『인문사회21』 제9권 5호(2018)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강사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Yeungnam University, Email: Opearl@hanmail.net)

1) 長崎原爆資料館과 廣島平和記念資料館이 대표적이다.

2) 여문환(2008),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정치와 국가정체성-한·중·일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47-149.

3) 辛泳洙, 朴秀馥·郭貴勳(1975), 『被爆韓國人』, 日本: 朝日新聞社, p. 296.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기록에서 배제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기억은 1995년 민간단체가 설립한 ‘오카마사하루 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岡まさはる記念長崎平和資料館, 이하 오카 자료관)의 조선인 피폭자코너에 조선인 피폭자 실태와 증언이 있을 뿐이다. 한국인 피폭자들에 대한 기억이 본격적으로 재현된 것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는 경남 합천에 2017년 ‘합천원폭자료관’이 설립되면서부터다. 이 자료관은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이하 협회) 주도하여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목표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자료관은 국내 최초로 건립된 원폭자료관으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실태에 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기록물 전시를 통해 원폭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위와 같이 합천원폭자료관의 건립 배경과 목표로 볼 때, 자료관의 전시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기억이 재현된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국인 피폭자들의 실상을 통해 배상과 치료, 복지 등의 문제에까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합천원폭자료관의 전시구성과 그 내용, 그리고 한국인 피폭자들의 기억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시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전시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시를 위해 본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필요한 정보인 자료관의 건립 및 기록물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관 건립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심진태 협회 합천지부장의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과 국립히로시마원폭사망자추도평화기념관, 나가사키원폭자료관의 전시 내용에 관한 분석이 있다. 이들 자료관은 원폭에 의한 민간인 피해만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에 원폭이 투하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원폭의 참상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⁴⁾ 또한 히로시마평화자료관의 담론분석에 관해서는, 도덕원칙에 입각한 반핵·반전 평화주의가 아닌 시점과 맥락에 따라 정치적 타협이 가능한 평화운동의 성격을 더 많이 노정시켰고, 한인 피폭자들의 요구는 백지화 되는 등 애매모호한 히로시마의 기억이 만들어졌음을 고찰하였다.⁵⁾ 더불어 오키나와전(沖繩戰)에 대한 기억을 담은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관에 관한 연구가 있다. 본 자료관은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반전평화자료관으로 개관했지만, 현재 일본의

4) 여문환(2008), 「동아시아 전쟁지역의 정치와 국가정체성-한·중·일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미경(2008), 「기억의 전환, 저항, 그리고 타협-광주 5.18 민주묘역과 히로시마평화자료관을 둘러싼 기억담론의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집 1호.

전쟁책임과 관련된 전시내용들이 삭제되어 기존의 설립의도가 많이 퇴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관 전시의 改惡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변경 전후 전시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다.⁶⁾

반면 오카 자료관은 일본에서 유일하게 전쟁책임과 보상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평화자료관으로, 이 자료관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각 종 전시 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이 자료관을 일본 정부의 공식기억과 대비되는 ‘대항기억(Counter-memory)’이라는 관점에서 전시를 분석하고, 소장 기록물을 『동아시아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사례가 있다.⁷⁾ 그런데 조선인 피폭자에 관한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서 조선인 피폭자들의 실상을 파악하기는 매우 힘들다.

본 연구가 시도하려는 합천원폭자료관의 전시 구성에 대한 분석은 한국인 피폭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료관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전시는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정보를 대중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⁸⁾ 전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난 장·단점은 향후 자료관의 목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록물 수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원폭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원폭 피해는 인류가 처음 경험한 사례로 그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를 통해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과 법률적 지원 및 대책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II. 한국인 원폭피해 실태

한국인 원폭피해 실태를 살펴보기에 앞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전체 피해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히로시마는 전체 인구 32만 81명(추정) 중 사망자는 11만 8,661명으로 전체 인구의 38%였다. 부상자는 총 인구의 25%인 7만 9,130명(중상 3만 524명, 경상 4만 8,606명)이었다.⁹⁾ 나가사키는 1945년 9월 1일 발표한 피해 현황에 의하면 사망 7만 3,884명, 중·경상 7만4,909명 등 총 14만 8,793명이다. 재해인원은 12만 820명

6) 김민환(2006), 「일본 군국주의와 탈맥락화된 평화 사이에서: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을 통해 본 오키나와 전(戰) 기억의 긴장」, 『민주주의와 인권』 6; 조성윤(2011), 「전쟁의 기억과 재현: 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자료관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5; 호사카 히로시(2004), 「오키나와전(沖繩戰)의 기억과 기록」, 『4.3과 역사』 4.

7) 남영주(2015),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의 전쟁기억과 『동아시아사』 교육」, 『日本近代學研究』 50.

8) 이은서·박현숙·전태일(2012), 「기록물 전시의 개념과 유형」, 『박물관학보』 23, pp. 49-50.

9) 廣島市役所 編(1971), 『廣島原爆災害誌』 第1卷, 廣島市役所, pp. 164-165.

(반경 4km이내 전소·전파된 세대 인원)으로, 총 피해자는 26만 9,613명이었다.¹⁰⁾ 당시 히로시마에 34만~35만 명, 나가사키에 25만~27만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원폭으로 인해 두 市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사망하였다.¹¹⁾

조선인은 1944년 末 히로시마에 8만 1,863명, 나가사키에 5만 9,573명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¹²⁾ 조선인 원폭 피해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힘들지만, 1968년 원폭 피폭자원호협회(이후 한국원폭피해자협회로 개칭)는 피해자 총 7만 명, 생존자 3만 명(중환자 30%) 정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조선인 원폭 피해자가 많은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정책을 지적할 수 있다. 1910년 8월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체결된 이후 1945년 일본의 패전까지 약 35년에 걸친 식민지배는 단순히 조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의 땅과 자원, 언어 등 모든 것을 박탈하고 신사참배, 궁성요배, 창씨개명 등의 ‘황국신민화’를 강제하는 억압적인 것이었다. 특히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산미증산계획(1920~1933년)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된 농촌에서의 식민지적 재편성에 의해 조선의 농촌사회는 수탈과 파괴가 극단에 달했다. 농지와 산림을 빼앗기고 생활터전을 잃은 수많은 농민이 고향을 버리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국외로 흘러갔다.

일제 식민지 이전부터 시작된 조선인들의 ‘渡日’은 한일병합조약 이후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일본의 군수경기가 살아나자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조선인은 일본의 탄광이나 공장, 토목현장에 투입되었다. 1939년 국민동원계획 아래 탄광, 광산, 그 밖의 노무자로 조선인에 대한 모집 이입(제1기-모집 노무동원)이 실시되었고, 1942년이 되자 태평양전쟁에 일본인 청장년이 대거 징집되면서 노동력 보충이 시급했다. 조선총독부의 알선에 의한 조선인 이입이 강화(제2기-관 알선 隊 조직 동원)되었는데, 전쟁 말기인 1944년 국민징용령이 발동되어 징발·연행이라는 수단으로 대량의 조선인 강제이입(제3기-징용동원)이 시도되었다.

조선인의 도일 시기는 1920년부터 1936년 사이와 1939년 이후로 구분된다. 전자는 삼남지방의 대홍수와 가뭄 등으로 촉발되었으며, 후자는 강제 노동동원과 징용 등이 요인이었다.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 당시 재일조선인 수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 전년도의 재일조선인 수는 전국에 790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 3만 189명으로 늘었고, 1930년 29만 8,091명으로 증가했다. 1940년에는 한해 전부터 실시된 국민동원계획에 의한 노동자 이입이 더해지면서 119만 444명으로 100만 명을

10) 長崎縣, 「八月九日 長崎市空襲災害參考資料」, 昭和二十年 九月一日.

11) 김기진·전갑생(2012),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 ... 2013년 합천』, p. 89.

12) 김기진·전갑생(2012), p. 95, <표6. 히로시마·나가사키 현 거주 조선인 인구 추이(1935~1945)> 참조.

넘어섰다. 1944년 12월 말에는 193만 6,843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¹³⁾ 이처럼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에는 다양한 이유로 조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인 피폭자의 대다수는 경남 합천지역 주민이다. 생존한 피폭자와 2세대 상당수가 합천에 살고 있다. 합천은 예로부터 전란 때 피난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초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야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며, 주요 경작지는 산간 계곡과 하천을 따라 형성되었다. 합천은 1922년 당시 6만 4,436km² 면적에 18개 면과 97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었다. 인구는 1920~1930년대까지 2만 3,000여 세대, 12만여 명 선이었다. 1922년 합천지역 농업은 소작농이 9,4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작농이 3,447명, 자작과 소작을 겸하는 농민이 6,677명이었다. 겸업을 합치면 전체 소작인은 1만 6,128명으로 총 농업인구 19,575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0년대 들어 합천에서는 자연재해가 다른 지역보다 극심해 많은 주민이 고향을 등지는 계기가 되었다.¹⁵⁾ 1920년 7월 18~19일 양일간 큰 홍수가나면서 강이 범람해 150명이 실종되고 유실된 가옥도 650호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전염병까지 발생해 1920년 8월 콜레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허덕일 때 사찰 해인사는 각 면의 농민회와 소작권 분쟁을 일으켜 농민들을 더욱 파탄에 몰아넣었다. 1923년 5월 합천 가야면 가야농민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민 대부분이 해인사 땅을 소작하고 있었는데 해인사가 소작권을 다른 지주에게 넘기고 말았다. 지주들은 비싼 소작료와 지세를 소작인에게 부담시켰다. 이에 삼가노동우애회(三嘉勞動友愛會)는 지세, 공과금을 내지 않기로 하고 소작권 박탈에 맞서 防止隊를 조직했다. 그러나 지주들은 삼가, 의령, 진주, 산청 합천을 연합·지주대회를 열어 소작농과 맞섰다. 1925년 5월 합천의 농업 상황은 소작 호수 9,329호, 자작3,989호(전체 농가 1만 3,318호)였다. 이들 소작 농민들은 지주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매월 500여명이 일본으로 도항했다.

합천에서는 1925년 7월에도 수해가 발생해 水田 1,000정보 중 700정보가 물에 잠겼다. 1925년 말 빈농이 3,961호에 달했고 거리를 떠도는 걸인도 240명이나 있었다. 1929년 6월에는 물 부족으로 苗塋 과중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같은 달 27일~29일 홍수가 발생해 주민 13명이 죽고 가옥 838채가 유실·붕괴·침수되는 등 경남에는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 합천의 잇따른 자연재해는 전시체제기까지 이어졌다.

자연재해와 지주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다.

13) 김기진·전갑생(2012), pp. 90~96, 참조.

14) 이수건(1979),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出版部, pp. 152~153.

15) 김기진·전갑생(2012), pp. 111~118, 참조.

그 중 상당수는 부산으로 가 18~20원을 주고 밀항선을 탔다. 192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본으로 떠난 농민이 3,508명에 달했다.

위와 같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특히 합천인들이 원폭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이다.

Ⅲ. 합천원폭자료관의 수집 기록물 현황

사)한국피폭자협회는 1967년 정부 인가 이후 중앙지부가 서울에 있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16년 합천으로 옮겨 왔고, 2017년 합천군의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합천원폭자료관이 설립되었다. 그간 중앙지부를 비롯한 각 지부(현재 6개)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자료관의 기록물은 대부분 합천지부가 수집한 것이다. 아직까지 명문화된 수집정책은 수립하지 못했고, 현재 기록물 목록 작성과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선별을 위해 자료관 방문시 파악한 소장 기록물을 주제별로 구분하였다.(2018. 1. 12, 방문, 형태상 박물관과 사진 자료로 분류되는 기록물은 주제 분류에서 제외함)

- ① 피해자 신상: 회원등록카드, 피폭자기초실태조사표, 원폭피해실태조사표(합천군), 피폭자건 강수첩(문서 자료), 피폭자 주민등록사본, 가족관계등록부사본, 수당증서
- ② 치료 기록: 渡日치료, 진료비청구자료, 치료내역서(국내), 韓國在住被爆者病症
- ③ 증언: 구술증언, 피폭자 증언서
- ④ 국내외 소송자료
- ⑤ 행사 자료: 워크숍, 위령제(추모제), 합천비핵평화대회
- ⑥ 언론(기관) 보도: 일본 기관들의 회보지, 일본 보도자료, 국내 보도자료
- ⑦ 기관 자료: 협회자료(정권, 회계 자료 등)
- ⑧ 출판물: 서적, 각 종 판플렛

*박물관: 녹음기, 여권(피폭자), 원폭자피해등록증, 피폭자건강수첩, 비디오, 카세트 테이프 등

*사진 자료: 행사 및 협회 활동 등

위와 같은 본 자료관의 소장 기록물은 8개 주제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록물 주제 분류에 의하면 본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폭기록물은 첫째, 피해사실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원폭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로 ①-③에 해당된다. 둘째,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기록물로 ④가 대표적이다. 셋째, 피해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기록물이다. 주로 2·3세들의 복지와 인권, 비핵·평화와 관련된 기록물로 ⑤⑥⑧이 해당된다. 아직까지 원폭기록물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원폭기록물에는 위와 같은 주제의 기록물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본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해 기록물’도 추가할 수 있는데, 주로 일본과 미국이 소장하고 있는 원폭자료이다.

관계자는 수집 기록물 중 본 자료관의 핵심 기록물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합천지부장 인터뷰 中) 첫째,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배상과 관련된 소송자료이다. 국내 소송은 모두 패소했지만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일부 승소하였고, 일본 소송 자료는 일본에서 출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둘째, 회원등록카드(원폭 피해자 개인별 카드)이다. 본 자료관에서 가장 중요한 기록물로 취급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 현재 약 2,500건을 소장하고 있다. 셋째, 1978년 합천군 전체 원폭피해자 608명에 대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기록물이다. 넷째, 韓國在住被爆者病症이다. 1972년 합천진료소에 일본인 의사가 파견되어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은 피폭자들의 질병에 대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구술기록이다. 구술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이 본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협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 피폭자들의 피해사실을 입증·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물로서 본 자료관의 특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전시는 소장 기록물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주제 선정이 필요하다.¹⁶⁾ 따라서 본 자료관의 수집 기록물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기억공간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6) 김형희(2010),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p. 72.

IV. 전시를 통해 본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대한 기억과 기념

2층으로 건립된 자료관은 1층에 전시관과 2층에 자료관과 사무실을 두고 있다. 전시관은 입구에 설치된 ‘Atomic Bomb’이라는 영상실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관람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전시 주제를 8개로 구분하여 아래 <표 1>로 정리하였다. 전시는 각 주제별로 핵심 전시를 중간에 배치하고, 상·하단에 추가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표 1> 합천원폭자료관의 전시 현황

구분	주제	전시내용
주제 1	원자폭탄의 배경	원자폭탄 개발과 투하 과정 설명 폐허가 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모습
주제 2	원자폭탄의 피해	*핵심 내용 리틀보이와 팻맨: 원자폭탄의 특성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해 상황
		*하단 전시 ①왜 합천인가?-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②왜 합천인가?-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해 상황 ③유품을 말한다-시계루君的 도시락 외 ④잔인한 내림 한 소녀의 죽음-사다코의 종이학 ⑤삶은 계속되어야 한다-잔인한 내림(원폭 2세, 김형률) ⑥합천 비핵 평화대회
		*상단 전시 ①원폭과 폭풍 ②원폭의 피해(4개) ③원폭의 고열과 화재
주제 3	전쟁은 끝났다	-국내 피해자의 목소리: 우리 원폭피해자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심진태(원폭 피해 1세) · 김○○(원폭 피해 1세) · 정○○(원폭 피해 2세) · 백○○(원폭 피해 2세) -2, 3세대의 대물림: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김형률 스토리
		①전시자료(1) -“증” 문상호(일제 강점기 보험증서, 출자증권)

		-“증” 정순덕(일제 강점기 임금통장, 예금증서, 채권) ②전시자료(2) -“증” 전상도(피폭자 개인 유품) -“증”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세계핵피해자포럼 (수집기와와 그릇 조각)
주제 4	원폭피해의 연대표	*핵심 내용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의 역사(1882~1972) -일본의 강제징용과 피폭 후 한·일 양국의 조치 (1910~2017)
		*상단 전시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합천비핵평화대회(1945~2017)
주제 5	원자폭탄의 이해	원자폭탄구조, 모형
주제 6	SELF CAMERA	원자폭탄의 폭발 위력 체험
주제 7	영상실	1세, 2세 영상증언, 각 종 연대 활동 등
주제 8	증언서	피폭 1세 ‘조순이’의 피폭당시 상황을 적은 체험 수기

위 <표 1>과 같이 8개의 전시 주제는 내용으로는 세 개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피해와 한국인 피폭 정황 특히 합천이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게 된 배경 등을 일본과 한국 피폭자들의 증언과 유품 등을 통해 그 실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전시는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들이다. 둘째, 한국인 피폭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법적투쟁 등에 관한 전시이다. 한국인 피폭자 중에는 적절한 치료와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내용은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전시로서 향후 피폭 2, 3세들의 복지와도 관련이 있다. 셋째, 원자폭탄에 대한 이해, 피폭체험, 그리고 비핵을 위한 국제연대와 관련된 전시다. 여기에는 추모제 등 기념행사도 포함된다. 즉, 비핵·평화, 추모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러한 전시는 향후 핵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이 자료관의 전시 내용은 피해사실, 해결을 위한 노력,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반영된 구성으로 원폭의 피해상을 재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 피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원폭이 왜 일본에 투하되었는지에 대한 전시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으로 인한 여러 국가들의 피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본 자료관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기억을 재현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식민지배로 인한 생존위협, 강제징용 등 조선인 수탈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한다. 1979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시 원폭재해지편집위원회가 발간한 『廣島・長崎の原爆災害』에는 한국인 피해가 컸던 이유를 일제의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배경을 지적하였다. 토지 조사사업, 산미증산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된 농촌의 식민지적 재편성에 의해 조선 농촌의 수탈과 파괴가 극단에 달했고, 생활터전을 잃은 수많은 농민이 고향을 버리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국외로 흘러갔다고 하였다.¹⁷⁾

둘째, 원폭 피해와 관련된 전시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일본인에 집중되어 있다. 「주제 1. 원자폭탄의 배경」과 「주제 2. 원자폭탄의 피해」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해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주제 2는 합천이 왜 한국의 히로시마인가에 대한 내용과 피해상을 다루고 있기에 한국인 피해가 중심이 된 전시가 구성되어야 한다. 피해자 유품의 경우 3건 모두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과 나가사키 원폭자료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이다.('시게루 君의 도시락', '신이치 君의 세발자전거', '어머니의 로자리오') 자료관 개관 당시 한국인의 피폭 상황을 전해주는 유품을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합천지부장 인터뷰 中) 한국인 피해자들의 유품을 구하기 힘들다면, 피폭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1세대의 증언기록을 선별하여 전시하는 등 한국인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폭 증언자들이 합천인 내지 특정인에 한정되어 있다. 「주제 3. 전쟁은 끝났다」의 '국내 피해자의 목소리'에는 1세 피폭자 2명, 2세 피폭자 2명의 증언이 전시되어 있는데, 실명을 공개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¹⁸⁾, 4명 중 3명이 합천인(결혼으로 편입한 경우 포함)이다. 원폭 피해자 대다수가 합천인이지만 본 자료관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기억공간이기에 여러 지역 출신 피해자들의 증언이 전시되어야 한다. 2세 피해의 경우에는 주제 2와 주제 3 모두 김형률의 피해를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피해 사례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증언자의 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시 유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제에 맞게 배치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주제 3. 전쟁은 끝났다」의 전시자료(1)은 일제의 금융수탈의

17) 김기진·전갑생(2012),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 ... 2013년 합천』, 서울: 선인.

18) 원폭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가 대물림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명공개를 꺼리고 있다.

증거이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기증자 정보와 유품의 생성 경위 등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원폭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자료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로 인한 징용 및 해외이주의 증거들로 「주제 2. 원자폭탄의 피해」의 한국인 피폭을 설명하는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시자료(2)인 전상도의 기증품(피폭자 개인 유품)은 한국인 피폭자의 유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증자의 신상정보와 피폭 장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전시자료(2)의 ‘수집기와와 그릇 조각’은 원자폭탄의 피해와 관련된 내용에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자료관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전시가 구성되어야 한다. 본 자료관의 목표는 한국인 피폭자의 ‘인권과 복지’이다. 이와 관련된 전시는 「주제 4. 원폭피해의 연대표」이다. 주요 전시는 피폭 후 한·일 양국의 조치,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합천비핵평화대회이다. ‘피폭 후 한·일 양국의 조치’는 대부분 국내 입법 활동 및 관련 조치들을 연대순으로 구성하였다. 이 내용들은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된 전시는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를 소개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합천비핵평화대회’는 협회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입법 활동과 문제 해결을 위한 행사, 자료관 개관 등 원폭피해와 관련된 활동 기록물을 연대순으로 전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협회의 노력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시 내용은 관련 법률과 행사인데, 피폭자들의 인권과 복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개의 내용을 분리해서 전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관의 목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제 4. 원폭피해의 연대표」라는 주제도 ‘인권과 복지’의 내용이 부각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본 자료관의 전시 주제는 ‘피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해, 원폭의 역사 및 위험성 등과 관련된 자료가 많다. 또한 이와 관련된 패널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서 한국인 피폭 사례와 관련된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패널은 자료관 개관을 앞두고 전시 자료가 부족하여 일본 원폭 자료관으로부터 기증받아 전시하게 되었다고 한다.(합천지부장 인터뷰 中) 개관 당시에는 자료관의 소장 기록물이 정리되지 못해서 전시할 수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지 못했지만, 현재 기록물 목록을 정리하고 있기에 향후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를 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본 자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자료관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록물을 전시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 공간화를 위한 전시구성과 개선 방안

전시는 기록관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록 정보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전시관 이용과 전시 내용에 관한 팸플릿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본 전시관은 아직까지 기록 정보서비스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기록관리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합천원폭자료관의 전시는 한국인 피폭자들의 기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자료관의 상설전시는 원폭에 의한 민간인 피해와 핵 폐기 및 평화가 중심 주제이다¹⁹⁾ 합천자료관 역시 한국인 피해와 문제 해결에 관한 전시는 일부일 뿐, 대부분 주제는 원폭의 피해상과 핵무기의 위험성에 집중되어 있다. 원폭에 대한 일본의 공식 기억과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본 자료관은 한국이 제2의 피폭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전시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 원폭이 투하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침략전쟁(1931-1945)시기 동안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상을 각 종 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오카 자료관의 전시를 참조할 수 있다.²⁰⁾ 대표적인 예로 「사진으로 보는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행해진 일본의 만행, 「強制連行 코너」는 탄광, 광산, 토목현장에 강제 연행되어 노역한 조선인, 중국인들의 실상 등이 전시되어 있다.

둘째, 한국인 피폭자들의 기억이 확충되어야 한다. 본 기록관의 소장 기록물 중에는 피폭자 구술증언과 피폭자 증언서, 증언이 수록된 출판물 등이 수집되어 있다.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발간한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에는 51명의 피폭자 증언이 수록되었다.²¹⁾ 수집된 증언 기록들을 전시에 활용한다면 합천 출신 피폭인 중심의 전시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출신의 피폭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다.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사례 뿐 아니라 나가사키에 거주한 한국인의 피폭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증언을 전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태블릿 pc 등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 중 대표 사례만 전시하고 나머지 증언은 태블릿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은 ‘영상공간’이라는 코너를 마련하여 피해 여성들의 영상 증언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19) 이정현(2007), 「일본 평화(원폭)자료관 건립사례와 시사점」, 『부산발전포럼』 105, pp. 48-55.

20) <https://www.okakinen.jp/%E5%B1%95%E7%A4%BA%E7%B4%B9%E4%BB%8B/>(검색일: 2018. 8. 9.)

21)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서울: 서진문화인쇄사.

전시가 구현되려면 우선 기록물을 콘텐츠 화해야 한다. 생존자 증언은 동영상으로, 증언 기록은 스캔 화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국인 피해에 관한 유품 전시는 현재적 관점에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피폭 직후 한국인들이 피해 유품을 챙길 만한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피폭의 고통과 싸우고 있는 정황과 관련된 기록물을 전시하는 것이 주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다. 본 자료관이 수집한 기록물 중 일본이 발행한 ‘피폭자 건강수첩’과 우리 정부가 발생한 ‘원폭 피해자 등록증’ 그리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渡日치료 기록’과 ‘韓國在在被爆者病症(합천지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합천원폭자료관의 전시는 목표인 한국인 피해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전시(특별전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기획전시의 가장 큰 장점은 관람객에게 상설전시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소장품이나 다양한 형태와 방법의 전시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전시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다.²²⁾

기획전시의 주제로는 ①자료관의 소장하고 있는 대표기록물, ②자료관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 ③자료관의 활동 결과물, ④자료관의 주제와 관련된 인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본 자료관의 핵심 기록물은 소송기록, 피폭자 개인별 카드, 1978년 합천지역 피해자 조사 기록, 1972년 일본인 의사가 파견되어 합천지역 피폭자들을 진료한 카드, 피폭자 구술증언이다. 피폭자 개인별 카드와 진료카드에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겨져 있어서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지만, 재판기록은 기획전시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자료관이 기획전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억공간은 주로 일제 강점기 피해 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자료관이다. 피해사실 인정과 문제해결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위안부 역사관과 근대역사관이 대표적이다. 재판기록물 관련 전시는 최초로 일본 정부로부터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시모노세키 재판 기록물을 전시한 「민족과 여성역사관」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²³⁾ 이 역사관은 2016년 ‘시모노세키 재판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고소장과 판결문, 재판과정을 다룬 책과 사진을 전시하였다.

본 자료관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와 관련된 기록물을 주제로 선정할 경우에는 ‘합천비핵평화대회’가 적합하다. 이 대회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 원폭피해자

22) 이은서·박현숙·전태일(2012), 「기록물 전시의 개념과 유형」, 『박물관학보』 23, p. 57.

23) 남영주(2017),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기억재현과 기억의 확장-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8(3), p. 135.

추모제와 피폭 2-3세들의 인권과 복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인 ‘합천평화의 집’이 중심이 되어 국내외 단체의 협력과 연대로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개최된 행사 내용과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자료관을 홍보하고 원폭 피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의 특별전시 ‘女性國際戰犯法廷의 모든 것-「慰安婦」 피해와 가해책임’을 참조할 수 있다.

자료관의 활동으로 생산된 기록물을 기획전시에 활용할 경우에는 핵심 기록물인 피해자 구술증언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 구술증언을 활용한 전시는 다양하다. 그 중 2018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특별기획전인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는 증언을 영상과 전시로 구분하였고, 「민족과 여성역사관」은 특별전 ‘위안부 100인의 증언’에서 전시와 구술자 사진을 활용하였다.

자료관의 주제 또는 소장 기록물과 관련된 인물을 선정하여 기획전시를 개최할 경우 2-3세 피해 문제를 위해 활동한 대표적 인물인 김형률을 선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원폭 피해의 심각성과 후세대의 복지 등에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원폭2세환우회에 가입되어 있는 원폭 2-3세는 1,300여명에 이르지만, 2017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은 원폭 2-3세를 피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인물 관련 특별전시를 개최한 대표적 사례는 2016-2017년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의 기획전 ‘우리가 기억하는 당신, 옥주씨’, 2016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의 ‘地獄의 戰場·미안마의 日本軍慰安所-文玉珠씨의 足跡을 따라서’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자료관이 기획전시에 선별할 수 있는 기록물은 다양하다. 여러 주제의 기획전시가 개최된다면 상설전시를 통해 드러내지 못했던 자료관의 기록물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맺음말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개관한 합천원폭자료관의 전시관이 한국인 피폭자들의 기억이 재현된 공간이 되는데 필요한 전시구성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먼저 본 자료관의 기록물 현황과 전시 상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피해사실과 관련된 기록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록물, 그리고 원폭 피해자 2,3세의 복지와 인권 및 비핵·평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련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기억을 수집하고 있는 본 자료관의 특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런데 전시관의 전시 내용은 한국인들의 피폭사실이 중심 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개관 당시 전시 기록물이 부족하여 일본의 원폭자료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원 공개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인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 피폭자들의 기억이 재현된 전시공간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다음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인들이 원폭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인 피폭자들의 다양한 증언과 피해 사례에 대한 전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전시 공간의 협소함은 테블릿 pc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 넷째, 기획전시를 계획할 수 있다. 기획전시는 소장 기록물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방법인데, 본 자료관이 핵심 기록물로 거론한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자료관이 참조할 수 있는 기획전시는 일제강점기 시기 한국인 피해에 대한 기억을 재현하고 있는 위안부 자료관을 비롯한 국내외 자료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향후 본 자료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록물 목록화 작업이 완성되면 기록물 분류를 위한 기록물분류표 개발 등의 기록화 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선별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문 아키비스트가 배치되어 기록물 관리 및 전시를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본 자료관과 목표가 유사한 기록물 관리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전쟁 책임 등을 언급한 오카마 사하루기념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리즈메이칸대학 국제평화박물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기록물 대여 및 기증 등 자료관 운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자료관을 대표하는 기록물인 ‘피폭자 개인별 카드’ 등은 한국인 원폭 피해 실태를 알려주는 역사기록물로서 영구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기록물로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기록물분류표 개발 작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의 연구 및 해결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자 료

- 廣島市役所 編(1971), 『廣島原爆災害誌』 第1卷, 廣島市役所.
- 김기진·전갑생(2012), 『원자폭탄, 1945년 히로시마 ... 2013년 합천』, 서울: 선인.
- 김미경(2008), 「기억의 전환, 저항, 그리고 타협-광주 5.18 민주묘역과 히로시마평 화자료관을 둘러싼 기억담론의 분석」,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집 1호.
- 김민환(2006), 「일본 군국주의와 탈맥락화된 평화 사이에서: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을 통해 본 오키나와 전(戰) 기억의 긴장」, 『민주주의와 인권』 6.
- 김형희(2010),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남영주(2015), 「오카마사하루기념 나가사키평화자료관의 전쟁기억과 『동아시아사』 교육」, 『日本近代學研究』 50.
- 남영주(2017),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기관의 기억재현과 기억의 확장-민족과 여성 역사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8(3).
- 朴秀馥·郭貴勳·辛泳洙(1975), 『被爆韓國人』, 日本: 朝日新聞社.
-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2011), 『한국원폭피해자 65년사』, 서울: 서진문화인쇄사.
- 여문환(2008), 「동아시아 전쟁기억의 정치와 국가정체성-한·중·일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건(1979),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出版部.
- 이은서·박현숙·전태일(2012), 「기록물 전시의 개념과 유형」, 『박물관학보』 23.
- 이정현(2007), 「일본 평화(원폭)자료관 건립사례와 시사점」, 『부산발전포럼』 105.
- 조성운(2011), 「전쟁의 기억과 재현: 오키나와 현립 평화기념자료관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5.
- 호사카 히로시(2004), 「오키나와전(沖繩戰)의 기억과 기록」, 『4·3과 역사』 4.
- 長崎原爆資料館: <<https://nagasakipeace.jp/>> (Retrieved 2018. 8. 14.).
- 廣島平和記念資料館: <<http://hpmmuseum.jp/>> (Retrieved 2018. 8. 10.).
- 沖繩縣平和祈念資料館: <<http://www.peace-museum.pref.okinawa.jp/>> (Retrieved 2018. 8. 10.).
- 岡まさはる記念 長崎平和資料館: <<https://www.okakinen.jp/>> (Retrieved 2018. 8. 14.).
-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http://wam-peace.org/>>(검색일: 2018. 8. 10.)>.

【요약】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합천원폭자료관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및 복지를 목표로 하였다. 그런데 전시관의 전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실상이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합천원폭자료관이 한국인 피폭자들의 기억 공간이 되기 위한 전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한국인들이 원폭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인 피폭자들의 다양한 증언과 피해 사례에 대한 전시가 있어야 한다. 셋째, 전시 공간의 협소함은 태블릿 pc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극복해야 한다. 넷째, 기획전시를 계획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록물 목록 작업이 완성되면 기록물 분류를 위한 작업이 시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선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제는 향후 연구로 제시한다.

핵심어: 합천원폭자료관, 전시, 기록, 원폭, 원폭 피해자